



보도 시점	<전매체> 6.24.(수) 08:00	배포	2026.6.24.(수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AX사업팀	책임자	팀 장	이민영 (044-300-0903)
		담당자	책 임	임인근 (044-300-0904)
배포 부서	소통홍보팀	책임자	팀 장	김민철 (044-300-0720)
		담당자	주 임	김셋별 (044-300-0721)

## 제조분야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

### 37개 과제 선정

- 158개 기업 신청...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 본격화 -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(단장 안광현, 이하 추진단)은 ‘제조분야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’의 최종 37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.
  - 해당 사업은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추진단이 추진하는 사업이다.
-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(인공지능 전환 스프린트)은 11개 부처\*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, 중소벤처기업부와 추진단은 제조현장 문제해결과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목표로 한다.
  - \* 기획처(총괄), 중기·산업·과기정통·국방·농식품·복지·기후·국토·해수부, 식약처
- 추진단은 지난 3월 19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수행기관을 모집했다.
  -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, 광주, 부산 3개 지역에서 자체

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, 도입기업, 공급기업, 지역 테크노파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.

○ 그 결과 총 158개 기업이 신청해 4.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.

□ 이번에 선정된 37개 과제는 지원유형별로 단기(최대 1년, 과제당 최대 20억 원) 21개, 중기(최대 2년, 과제당 최대 30억 원) 16개이며, 지원 분야별로는 민간수요형 23개, 지역육성형 14개로 구성됐다.

○ 중기부의 ‘제조분야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’은 산업안전, 공정·생산, 관리·경영, 소비자 맞춤형 제품·서비스 등 4개 대분류를 중심으로 제조 전 주기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.

< 선정결과 대표 사례 >

<p><b>산업안전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온 열처리 공정의 설비 이상을 인공지능이 실시간 감지·자율 제어해 작업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능형 열처리 안전관리 플랫폼</li> <li>○ 물류창고에 자율주행 로봇·무인지게차를 투입해 작업자 수작업을 대체하고 안전구역을 자동 설정하는 무인 물류 안전관리 플랫폼</li> </ul>
<p><b>공정·생산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류·소스류 발효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이상 발효를 사전 감지하고 K-소스 품질을 표준화하는 발효공정 지능화 솔루션</li> <li>○ 반도체 소재 공정에 인공지능 비전검사·예지보전을 적용해 수작업 검사를 대체하고 불량률을 낮추는 공정 자율화 시스템</li> </ul>
<p><b>관리·경영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기차 부품 생산·설비·글로벌 공급망 데이터를 통합해 인공지능이 생산계획·재고관리·에너지를 자율 최적화하는 제조 통합운영 체계</li> <li>○ 날씨·수요 변화를 인공지능이 사전 예측하여 노후 발전 설비의 에너지 생산·공급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지능화 시스템</li> </ul>
<p><b>소비자 맞춤형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장품 ODM 전 공정에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적용해 방부력·물성 예측부터 레시피 자동 생성까지 구현하는 자율제조 플랫폼</li> <li>○ 소비자 피부톤·선호 색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맞춤형 색조화장품 처방을 자동 설계하고 양산 레시피까지 변환하는 맞춤형 뷰티 제조 모델</li> </ul>

- 기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제조실행시스템(MES)·전사적자원관리(ERP) 등 IT 인프라의 양적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면, 본 사업은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 1~2년 내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성과 중심 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.
- 민간수요형 분야는 제조현장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역량 내재화를 통해 단기간 내 제조 분야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지역육성형 분야는 지역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협력단을 구성하고, 지역 테크노파크가 기획기관으로 의무 참여하도록 했다. 이를 통해 지역 기업·기관·대학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동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.
- 추진단 안광현 단장은 “인공지능 전환은 이제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”라며, “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상용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고, 이 성공 사례가 우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